

남구, 진월동 스포츠 타운에 '수변공원' 조성

데크 산책로 등 운동·휴식 병행 도심 속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광주 남구는 생활 스포츠 중심지인 진월동에 휴식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친수공원 조성에 나섰다.

남구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운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 SOC 구축 차원에서 남구 국민체육센터와 진월복합운동장을 연계한 진월동 수변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진월동 수변공원은 진월복합운동장 바로 옆에 들어선다.

남구는 사업비 7억9000만원을 들여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진월복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국제테니스경기장까지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한 도심 속 친수공간을 조성, 진월동과 봉선동, 노대동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변공원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변공원의 규모와 둘레 길이는 2300평(7605㎡) 크기에 400m 가량으로, 달리기 종목인 육상 400m 경기 트랙과 비

슷한 수준으로 조성된다.

수변공원 안쪽에는 진월 저수지 수면위를 가로지르는 데크 산책로가 설치된다. 굴곡진 사각형과 반원형을 혼합한 형태로, 총 길이는 300m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데크 산책로는 저수지 주변 모서리 3곳의 지점에서 진입할 수 있다.

데크 산책로를 제외한 구간은 황토색 콘크리트 산책로로 채워진다.

진월 저수지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지점에는 주민들이 휴식과 함께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별 가리개 쉽

가 들어서며, 수질 관리를 위해 자정 기능을 하는 분수대도 설치된다.

진월동 수변공원 조성 공사는 이달부터 시작해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진월동 수변공원이 완성되면 다목적체육관에서부터 국제테니스 경기장까지 순환형 산책로 동선이 완전히 연결된다"며 "생활 체육시설을 집적화한 만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교육 서구, 민관협력 활성화 방법 등

광주 서구는 지난 5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사협)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마을복지계획 추진력 강화를 위한 생각의 전환'을 주제로 비영리 컨설팅 '웰팜' 김미경 대표 강의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민관협력 활성화 방법, 자원 개발 및 연계를 위한 동 지사협의 핵심 전략 등에 대해 강조했다.

김영재 동 지사협 위원장단 협의회장은 "동 지사협 출범 10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서구, 5월 4일까지 접수

광주 서구가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서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필수교육인 '희망길라잡이 클래스'를 1회 이상 수강한 자다. 접수 기간은 5월 4일까지다.

'희망길라잡이 클래스'는 오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매주 화·목·토요일 오후 2시30분, 화·목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15회차로 진행되는 기본 소양교육이다.

서구는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운영 및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후 점포경영개선 필요성 등을 심사해 시설개선 75개소, 홍보·마케팅 50개소 등 총 125개 업체에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및 홍보·마케팅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062-601-0375)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강주비 기자**

솔잎쉼터봉사회 무료 급식소 복구, 광운교회 매주 금 점심

광주 북구는 솔잎쉼터봉사회와 손잡고 취약계층 대상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운암동 소재 광운교회에서 민간 후원을 기반으로 한 '솔잎쉼터봉사회 주관 무료 급식소' 운영이 개시된다.

광운교회는 무료 급식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공공요금을 부담하며 솔잎쉼터봉사회에서는 음식 준비, 봉사활동 등 무료 급식소 운영 전반을 책임질 예정이다.

북구는 취약계층 대상 홍보, 후원 물품 제공 등 무료 급식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급식소 운영 기간은 휴서기(8월)와 휴한기(12월)를 제외하고 연중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해당 시간에 일 120인분 이상 점심 식사를 무료 제공한다. **정성현 기자**

'환경지킴이' 어린이 꽃 심기 행사 서구, 식목일 기념

광주 서구는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꽃을 심는 '나는야 환경지킴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서구는 어린이들에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기회 제공을 위해 행사를 추진했다.

원아들은 어린이집 일원에 수국 5주, 샬스타데이지 등 6종 360본을 심고 재활용 페트병을 집에서 가져와 상추, 쪽파, 깻잎 등 4종의 친환경 작물들을 심었다.

박재영 서구 아동청소년과장은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광주 서구가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꽃을 심는 '나는야 환경지킴이'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한 어린이가 꽃을 심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청년층 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 남구, 2000만원 투입

광주 남구는 지난해 청년 취업 준비생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남구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2000만원을 투입해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토익을 비롯해 토익 스피킹, 토플, 아이엘츠, 오픽, 텡스, 지텔프, 플렉스 8종에서 HSK(중국어), JPT·JLPT(일본어), DELF-DALF(프랑스어), TORFL(러시아어), DELE(스페인어), SNULT(중국어)까지 어학 분야의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정상아 기자**

서구, 야간 상록별빛학교 운영

광주 서구는 오는 7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상록도서관에서 인문예술 야간 특강 '상록별빛학교'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첫 강좌는 오는 26일 정재경 초록생활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식물 돌보며, 나도 돌보는 습'이라는 주제로 식물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 식물과 친밀하게 교감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5월~7월 △슬기로운 방구석 외인생활(임승수 작가) △힐링되는 타로 테라피(김리아타로분석가) △한여름밤 뮤지컬 산책 '노트르담 드 파리'(이동섭 예술인문학자)가 운영된다. 상록도서관(062-350-4593)으로 문의. **강주비 기자**

부모 양육 코칭 '동구 금쪽 상담' 호평

출산앞둔 부부 양육 고민 등

광주 동구는 아동 교육·상담 전문가와 1:1 및 소그룹 상담 지원하는 부모 양육 코칭 '동구 금쪽 상담'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문을 연 '동구 금쪽 상담소'에는 둘째 출산을 앞둔 부부의 자녀 양육 고민과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한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부모의 맞춤형 양육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 대상은 동구 18세 이하 아동을 양



부모 양육 코칭 '동구 금쪽 상담'. **광주 동구 제공**

육하고 있는 부모와 보호자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9월까지 선착순 수시 접수로 동구청 누리집을 참조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한 후 여성아동과 아동보호계로 방문 또는 이메일(justlu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원만할 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광산구, 정책 홍보 영상 공모전... 6월3일까지 접수

뮤직비디오 등 5분 이내 제작

광주 광산구는 시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알리기 위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순수 창작한 광고, 영화, 드라마, 기록 영화(다큐멘터리), 영상일기(브이로그),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을 모집한다. 영상 분량은 5분 이내로 제작하면 된다.

지역 및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6월3일까지 '온라인 폼' 신청서를 작성, 전자우편으로 창작한 영상물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게재된 인터넷 주소 및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누리집 및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접수 후 독창성, 완성도,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후 총 8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1편) 200만원, 최우수상(1편) 150만원, 우수상(1편) 100만원,佳作(5편) 각 10만원 등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종 당선작은 7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